



▶ 해운물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톤세제 적용 선사 선정을 위한 국적선사 대상 '용선거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2월 중 완료돼 희망업체의 선박제원·운항선박 신고 등이 전산시스템을 이용, 연간 운항톤수 확인 후 톤세 적격기업을 확인하게 된다.

3월부터는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및 안전화를

위해 수익보전형 선박펀드를 개발하고 선박운용 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또 올해부터 국적선박 500여척에 대한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를 척당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해 약 1000명의 외국인 선원이 추가 고용되고 국제노동기구(ILO) 통합 해사협약 채택이 맞춰 국내 비준 준비 등 제도정비도 추진된다.

## 부산 신항에 5,000TEU급 컨테이너선 첫 기항 MSC 신항에 주당 2척의 컨테이너선 정기기항

지난달 1월19일 개장한 부산항 신항에 마침내 정기선이 기항했다.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세계 2위 선사인 스위스 MSC가 2월25일부터 신항에 주당 2척의 컨테이너선을 정기 기항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장 이후 물량 유체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신항이 조기 활성화되게 된 것은 물론 신항을 동북아 중심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2월25일 신항에 첫 기항한 선박은 중국-부산-북미동안 항로를 운항해 온 MSC 리사(LISA·5048TEU급)호로 이 배는 이날 오전 10시에 접안, 20피트 컨테이너 800여개를 싣고 내렸다.

또 2월27일 오전에는 중국-부산-남미서안 항로를 운항하는 MSC 라라(LARA·2480TEU급)호가 접안, 컨테이너 600여개를 양적하한 뒤 멕시코 만자릴로항으로 떠났다.

MSC는 그동안 부산항 감만부두 대한통운터미널에 자사 선박을 주 5항차 기항시키면서 연간 60만개의 컨을 처리해 왔는데 이 가운데 2항차를 신항으로 돌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MSC는 올해 신항에서 20만-30만TEU를 처리한 뒤 물동량 증가 추이에 따라 내년부터 처리물량을 늘려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신항만(주)는 MSC외에도 2, 3개 선사와 신항 기항 문제를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기항 선박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PA 관계자는 "세계적 선사인 MSC가 기항함에 따라 신항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BPA는 신항 개장을 계기로 부산항을 동북아 중심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